

'태극남매' 이용대-이효정 몸 풀듯 16강 스매싱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 하정은-김민정도 16강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에 빛나는 배드민턴 '태극남매' 이용대-이효정(이상 삼성전기) 짝이 2010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16강에 진출했다.

이용대-이효정은 25일(한국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 스타드 피에르 드 쿠베르탱 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진 대회 혼합복식 2회전에서 덴마크의 미켈 델보 라르센-스콧 크리스텐슨 짝을 세트 스코어 2-0으로 가볍게 물리쳤다.

이용대는 앞서 정재성(국군체육부대)과 짝을 이룬 남자복식 2회전에서 매튜 포거타-데이비드 뉴먼(이상 미국)도 2-0으로 제압했다. 지난해 준우승의 아쉬움을 남겼던 이용대-정재성 조는 1세트를 21-13으로 끝

내고 나서 2세트에서도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으며 10-4에서 내리 11점을 따내 경기 시작 23분 만에 승리를 챙겼다.

지난 5월 팔꿈치 통증으로 재활에 몰두했던 이용대는 지난 8일 대만 오픈에서 정재성과 짝을 이뤄 우승하며 컨디션을 회복했고, 이번 대회에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해 사상 첫 세계개인선수권대회 금메달 도전을 향해 순조롭게 출발했다.

혼합복식 2라운드에서 출전한 고성현(김천시청)-하정은(대교)은 하시모토 히로카즈-후지 미즈키(이상 일본)를 상대로 2-0 완승을 했고, 유연성(수원시청)-김민정(전북은행)도 천홍림-조우치아지(이상 대만)를 2-1 힘겹게 물리쳐 나란히 16강에 올랐다.

이밖에 여자복식 2라운드에서 나선 하정은-김민정은 마리온 그루버-사브리나 자크(이상 스위스)를 2-0으로 돌려세우고 16강에 합류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베이징 올림픽 금빛 스매싱에 빛나는 이용대-이효정 짝이 25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개인배드민턴 선수권 남녀복식 2라운드에서 덴마크의 미켈 델보 라르센-스콧 크리스텐슨 짝에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라파엘 나달>

<캐롤라인 워즈니아키>

나달·워즈니아키 US오픈테니스 톱시드

여자단식 예선 이진아·김소정 출전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과 캐롤라인 워즈니아키(2위·덴마크)가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US오픈 테니스대회 남녀단식 1번 시드를 받았다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25일(이하 한국시간) 발표했다. 남자단식은 나달에 이어 로저 페더러(2위·스위스), 노박 조코비치(3위·세르비아) 순이었고 여자는 김 클리스티스(3위·벨기에)와 비너스 윌리엄스(4위·미국)가 뒤를 이었다.

30일부터 본선이 시작되는 US오픈 테니스대회는 남녀단식 우승자에게 170만 달러(한화 20억원)를 주는 등 총상금 2천260만 달러(한화 270억원)가 걸려 있다.

남자단식에서는 역시 세계랭킹 1.2위를 달리는 나달과 페더러의 경쟁이 불만하다. '디펜딩 챔피언' 델포트로가 부상 탓에 불참하는 가운데 조코비치, 앤디 머레이(4위, 영국), 로빈 소더링(5위·스웨덴), 토마스 베르디흐(7위·체코) 등이 우승권에 근접했다는

평이다.

여자단식에서는 세계 1위 서리나 윌리엄스(미국)가 나오지 않아 쉽게 우승자를 예상하기 어렵다. 톱 시드를 받은 워즈니아키와 지난해 우승자 클리스티스, 윌리엄스 등이 유력한 우승 후보다. 2006년 우승자 마리아 샤라포바(16위·러시아)의 성적은 항상 팬들의 관심사다. 올해 메이저대회에서는 호주 오픈 1회전 탈락, 프랑스오픈 3회전 탈락 등으로 재미를 못 봤고 윌리엄스에서도 16강 진출에 만족해야 했다.

한국 선수로는 여자단식 예선에 이진아(164위·양천구청), 김소정(225위·한솔제지)이 출전했다. 이진아는 26일 1회전에서 하디 엘 타바크(212위·캐나다)와 맞붙고 김소정은 아니코 카프로스(205위·헝가리)를 상대한다. 세 번을 내리 이겨야 본선에 오를 수 있다.

한국 선수가 메이저대회 여자단식 본선에 진출한 것은 2007년 US오픈 조윤정이 마지막이었다. /연합뉴스

'번개' 볼트 2982억 이상 벌어들일 듯

푸마와 역대 최고액 연장 계약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24·자메이카)가 스포츠용품업체 푸마와 2013년까지 역대 육상선수 최고액에 계약을 연장했다.

푸마와 AP통신 등은 25일(한국시간) 볼트와 푸마가 장기 계약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육상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트랙알라츠닷컴'은 소식통을 인용, 볼트가 이번 계약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푸마가 만든 의류, 신발 제품인 '볼트 컬렉션' 덕에 2억4천만달러(2982억원)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지난해 초 여자 장대높이뛰기 지존 엘레나 이신바예바(28·러시아)가 중국 스포츠용품업체 리닝과 연간 150만달러에 5년간 장기계약해 역대 남녀를 통틀어 최고액 수를 기록한 것을 훌쩍 뛰어넘는다.

리닝은 당시 볼트가 푸마와 후원 계약한 금액을 기초로 이신바예바의 몸값을 산정했



던 것으로 알려져 볼트의 몸값이 작년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를 거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스포츠 브랜드인 푸마는 2012년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공격적인 경영을 위해 볼트에게 과감하게 베푼 것으로 알려졌다.

2008 베이징올림픽과 작년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100m와 200m, 400m 계주에서 잇달아 3관왕에 올라 단거리를 평정한 볼트는 특히 100m(9초58)와 200m(19초19) 세계 기록을 동시에 보유한 사상 첫 스프린터라는 영예도 안았다. /연합뉴스

박태환 AG 금물살 위해...

10월 전국체전 불참 ... 호주서 마지막 담금질

2010 광주 아시안게임에서 명예회복을 버는 수영스타 박태환(21·단국대)이 10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대신 호주에서 마지막 담금질을 하기로 했다.

대한수영연맹의 박태환 특별강화위원회는 25일 "박태환은 9월 대표팀의 끝 전지훈련 후 바로 호주로 건너가 훈련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체전은 참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태환은 아시안게임 개막 한 달 전 치러지는 전국체전에 참가하지 않고 대신 호주에서 훈련을 진행하면서 일정이 맞으면 현지 대회에 참가해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싶어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열린 2010 팬퍼시픽선수권대회에서 부활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준 박태환은 일단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오는 30일 판으로 떠나 노민상 감독 지휘로 3주가량 훈련을 실시한다.

박태환의 부활을 돕는 마이클 볼 호주 대표팀 코치도 열흘 정도 짬을 내 판으로 건너와 박태환의 훈련을 지켜볼 예정



이다. 대표팀 선수들은 곧 훈련을 끝내고 다음 달 19일 돌아올 예정인데, 박태환은 이때 귀국하지 않고 바로 호주 브리즈번으로 이동한다.

박태환은 호주에서 전담 지도자인 마이클 볼 코치와 함께 약 한 달간 훈련을 이어간다. 노민상 감독의 합류 여부나 기간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태환은 올해 1~2월과 4~7월 두 차례 호주에서 볼 코치, 노민상 감독의 공동 관리 아래 훈련했다. 두 차례 호주 훈련의 성과는 최근 막을 내린 팬퍼시픽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 자유형 200m 은메달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대구 세계육상 입장권 빨리 사면 20% 할인

내년 8월27일부터 9일간 대구에서 열린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입장권을 9월 안으로 사면 판매가격보다 20%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D-365일을 앞둔 25일 온·오프라인에서 입장권 판매 및 문화 행사 계획을 일괄 발표했다. 조직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 대구 노보텔에서 입장권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티켓 판매에 들어간다.

오전 시간대 판매되는 일반석 B석 좌석은 1만원으로 가장 싸고 인간탄환의 각축장이던 남녀 100m 결승선에 자리 잡은 프리미어 F석이 15만원으로 가장 비

싸다. 전 경기 입장권은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85만원에 이른다.

특히 100m 시작선과 결승선에 위치한 프리미어 S석과 F석 입장권을 사면 식사와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고 프리미어 입장권 4매를 구입하면 주차권 1매를 받을 수 있어 품격 있는 손님 접대가 가능하다고 조직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9월30일까지 입장권을 사면 추천을 통해 LCD TV와 미니프로젝트, MP3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고 조기예매에 따른 10% 할인혜택을 추가로 줘 판매 가격보다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